

## 충남발전연구원

- 제1회 특별강의 실시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연구원 구성원들의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정보공유를 위하여 2월 22일(목), 16:00~18:00까지 연구원 회의실에서 직원 30여명이 제1회 특별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은 김영표 국토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의 “연구 잘 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연구의 철학과 개념을 시작으로 연구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길
2. 철학 있는 연구
3. 연구의 구상
4. 전체를 꿰뚫는 연구방법론
5. 최소비용 최대효과 연구전략
6. 眞善美를 갖춘 보고서 작성
7. 연구의 홍보 전략

또한 이 날 특강을 경청하기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이 참석을 하였다. 향후 대전·충북개발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강에 우리 연구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연구원 10분 토론마당 실시

충남발전연구원은 매주 월요일 주례회의가 끝난 후 자유로운 주제로 연구원이 자료를 준비하여 10분 토론마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부터 시작하여 3월 현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0분 토론마당을 통해 연구원들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학습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한다.

발표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10분 토론마당 실시 현황〉

2007. 3 현재

월	일	이름	발 언 주 제	비 고
1월	16일	송두범	자치단체의 농촌개발 사례	
	29일	강영주	日 지자체 14년만에 첫 파산... 유바리시 재정파탄	
2월	5일	박광배	한국경제 전망과 농업의 역할	
	12일	성태규	고령화시대 사회부문별 영향과 대응방향	
	26일	윤갑식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천성 제고방안	
3월	5일	정종관	진보와 빈곤, 그리고 환경	
	12일	박철희	세계의 도시경쟁력	
	26일	신동호	일본의 신경제 성장 전략에 관한 소고	

## 「당진군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당진군(군수 민종기)은 2월 6일 오후2시 30분 당진군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지역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지역주민, 당진군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군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진 철강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기본연구”, “도청신도시 및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당진군 연계발전 전략”, “당진시(市) 승격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당진군의 장기발전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과제가 모색되었다.

주제발표를 통하여 김갑성 교수(연세대학교)는 당진지역 철강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철강생산공동지원센터(가칭) 설립, 현대제철공업고등학교 설립, 철강관련 대학 캠퍼스 유치, 송산 일반 지방산업단지 배후주거지 개발, 현대 철강·자동차박물관 설립 등을 통해 산업·정주·교육기반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조봉운·박철휘 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은 도청신도시 건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이 당진군에 농업형태의 변화, 제조업 집적 및 클러스터의 형성, 관광산업의 성장, 종합병원 등 의료·복지기능의 강화, 수도권 및 대전권 산업의 이전,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교통량 증가와 인구유출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줄

이고 긍정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산업입지의 수용 및 관리, 주변 시·군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 성장정책을 마련하여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경득 교수(선문대학교)는 당진시(市) 승격의 필요에 대하여 인구(127,167명), 세대수(48,573명), 면적(664.78km<sup>2</sup>), 지방세 수입(1,220억원), 재정자립도(34.7%),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60.7%), 도시의 주거문화인 공동주택, 기업, 도시계획 등 제반여건이 모두 기준을 충족시켜 이미 시승격에 적합한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향후 시승격을 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저비용 고효율의 자치행정체제 구축, 민선자치행정의 책임성과 주민서비스 제공능력 제고 등 새로운 행정체제의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당진군의 지역주민, 사회단체, 공무원과 전국의 지역전문가들이 직접 토론을 통하여 당진군 현안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으며, 또한, 21세기 중부권 물류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도시 당진군 건설을 위해 지역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대도시권 설정과 지역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 포럼

- 25일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통계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50여명 참석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 사단법인 지역발전포럼(공동대표 이영준)은 25일 오후2시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통계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권 설정과 지역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 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능적 지역개념에 의한 지역통계의 개발과 활용, 광역대도시권역 설정과 도시와 지역통계의 활용,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수요와 개발과제

등 분야별 열띤 토론을 통해 지역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과제가 모색되었다. ▲김재익 계명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기능적 지역개념에서 지역통계를 대도시권역과 소규모권역 모두 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통계가 개발되어 현재의 행정단위에 의한 지역통계 보다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고 정책에 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광역화되고 있는 도시 및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서울, 대구, 부산 울산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였으며, 광역도시권 설정에 있어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보다는 좀 더 미시적인 소지역단위의 통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생산기관과 통계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지역의 통계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전국단위 통계의 지역 통계화, 신규 개발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지침마련, 원시자료에 대한 공개, 예산지원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관련 전문가 및 통계 관련 시 군의 공무원이 직접 토론하여 지역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되었으며, 또한 이 포럼을 주관한 두 연구원과 (사)지역발전포럼에서는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내용을 모아 지역통계지원체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정책당국이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이날 행사에 큰 의미를 두었다.

## 충남발전연구원,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적극 지원

-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와 자매결연 체결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이장 이춘복)는 20일 오후 2시 충남발전연구원장, 청양군수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고 화산리를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만들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교류 및 지원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원 기능이 계획수립에서 계획집행과정의 컨설팅 및 코칭(Coaching)기능으로 확대 보강되게 됨에 따라 금번 결연식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화산리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지도자 및 주민에 대한 교육, 마을환경 정비 및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방안 제공, 농특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정보제공,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평면 화산1·2리는 청양군 전체 16개 읍면 중에서 2006년까지 마을회관이 없는 유일한 곳으로 전체가구 수 79가구로 240명이 살고 있는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돼 있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화산리는 이춘복 화산리 이장을 중심으로 청양군의 지원을 받아 교육청 소유였던 화산초등학교 폐교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생활관 리모델링, 보건소 신축, 체험관주민생활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등 살기 좋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꾸기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화산초등학교 폐교건물은 어두침침하고 주민들이 운동조차 할 수 없는 버섯농장 공간에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주민생활관으로 변모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꾸기에 선정되기까지 투여된 노력과 소요비용은 10억원이 넘는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이러한 화산리의 열정적인 농촌체험마을 가꾸기 노력을 지원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금번 행사를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등과 협의 하에 추진하게 되었고, “어느 마을보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이 되어서 출향인들이 다시 찾는 활기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의 바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충남발전연구원은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농촌 리더 육성과 전 도 차원의 확산을 위해 유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23일 오후2시 30분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계전문가,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공무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충남의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전략, ▲지역집중과 계절편중 관광패턴의 극복방안, ▲관광자원 특성별 상품 제공방안, ▲관광개발 변화와 방향, ▲홍보와 마케팅 발전방안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주제발표를 통하여 제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문화관광연구팀장은 충남 관광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과제로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권에 편중되는 관광패턴을 해소하

는 방안 마련과 계절적 패턴에 적합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내외국인을 위한 관광시설과 공간개발 등 국내·외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은 그동안 충남관광이 지역과 계절에 편중되었다며 지역적 관광 집중현상 극복방안으로 내륙지역 중심의 신소재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연계도로망을 확충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벨트를 개발해 나가는 방안과 계절편중 극복방안으로 겨울바다 갯벌여행과 해수욕장 연날리기 등 역발상을 통한 해수욕장 활용방안 및 특산품을 할인하는 세일기간을 운영하는 충남관광 그랜드세일운영 등 계절별 특성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강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수 배재대학교 교수는 충남 관광자원의 특성별 관광상품 제공방안으로 관광시장별 맞춤형 관광상품을 제공하며 충청권 광역연계상품 및 한국?일본?중국을 연결하는 광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충남의 관광개발 변화와 방향에 관하여 기존의 도시와 마을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개발하며 디자인을 통한 관광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 어메니티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등 지역 구성원간 연대하여 학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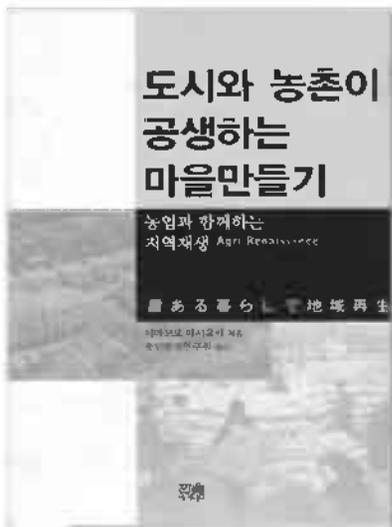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충남관광 홍보 마케팅 방안으로 거점 관광지나 초기 관광개발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 홍보로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 포지셔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계전문가, 도 및 16개 시군의 관광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학생들이 직접 토론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의지와 아이디어를 모으는 場이 되었다.

아울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충남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번역서 발간 >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마을만들기



한울아카데미 2006년 12월 출판

지금은 도시에서 농촌의 여유로움을 찾고, 농촌에서 도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도시·농촌 공생의 시대이다.

이 책은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과 교류를 위한 마을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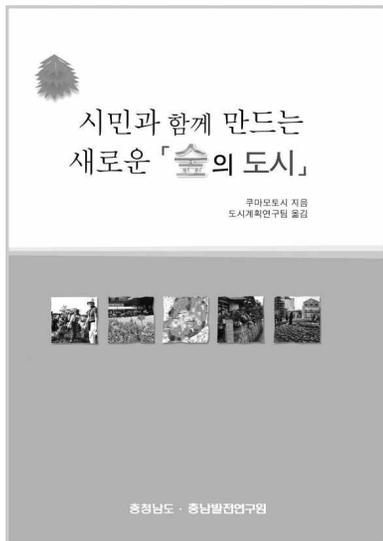
먼저 도시민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농촌주민의 의식과 토지이용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도시농지를 활용하여 마을을 재생하는 방법, 농촌자원을 살려 마을을 재생하는 방법,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지역을 재생하는 방법 등을 차례로 설명한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과 계획가, 전문가, 도시와 농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 번역서 발간2 〉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숲의 도시」



충남발전연구원 2007년 2월 출판

도시 속의 공원녹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휴게, 휴식, 여유와 활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도시림은 국토면적의 0.3%, 1인당 면적 6.56㎡로 WHO의 권고기준인 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도시녹화계약, 녹화계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시민과 함께 선진적 공원녹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쿠마모토의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공원녹지 확충과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